

Dongguk for you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튼튼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산부인과 노주원 교수, 부인종양학회 초청 강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노주원 교수는 지난 9월 2일 부인종양학회 주최 ‘제 11차 부인종양을 연구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워크숍’에서 ‘복강경적 신경보존 광범위 자궁적출술’의 수술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에 강연된 ‘광범위 자궁적출술’은 자궁경부암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최신수술기법으로 고난이도의 수술이다. 신경보존 광범위 자궁적출술은 기존의 수술 시행 후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만성합병증인 배뇨장애, 배변장애, 성기능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골반신경을 보존하면서 광범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로 알려져 있다.

한편, 노주원 교수는 지난 3월 개최된 대한부인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에 관한 초청 강연을 한바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서울대병원 초청강연이 계획되어 있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본원 산부인과 진료가 국내 최고 수준임이 입증되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2017 고양시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걷기대회 동참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2일 고양시 관내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2017 치매 인식개선 걷기대회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및 일반시민 등 전 연령대가 함께 참석하여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면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로 9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치매 걷기대회에는 고양시 소재 8개 병원이 동참하여 건강 체험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본원에서는 한방내과 이상아 교수와 한방전공의 등이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위해 금연침 시술, 한방차 시음, 한방 건강 상담 및 예코백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퇴직공무원 대상 치매 예방을 위한 원내 건강강좌 개최

지난 9월 5일 본원 5층 대강당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최 경인지역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신경과 김광기 교수와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는 최근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 예방관리’를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강좌에서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는 노년기의 가장 무서운 질병인 치매에 대해 한의학적 설명으로 노화와 치매는 신장의 정기가 쇠하여 노화가 일어나며, 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오장기능의 강화와 체질과 계절에 맞는 음식 운동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가 함께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설명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경과 김광기 교수는 치매에 대한 정의와 치매의 원인, 증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치매 예방을 위해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하며, 뇌혈관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권했다.

한편, 이날 강좌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본원 건강검진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퇴직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는 교육으로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 지역 내 유·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건강강좌

소아청소년과 김지현 교수는 지난 8월 31일 식사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유·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식사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본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관내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자리가 마련됐다.

강의는 매월 1회 마지막 주 목요일 4시 30부터 한 시간 가량 총 3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첫 번째 주제는 ‘국내 청소년의 비만 현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김 교수는 비만의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 심리적 원인, 환경적 원인과 에너지대사의 불균형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현재 급격한 서구화된 식생활로 국내 소아비만이 급증되고 있으며, WHO에서는 비만을 ‘21세기 신종전염병’으로 지목하고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교수는 “이번 강좌를 통해 유·청소년의 비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랑재’ 봉사단, 암 환자를 위한 가발 후원

사회사업실은 지난 8월 30일 본원 4층 중강당에서 사랑재 봉사단 후원 암 환자 가발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본원에서 암 치료 중인 9명의 환자에게 가발을 지원하였으며, 환자가 직접 가발을 선택한 후 착용 및 손질까지 하여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봉사단은 환자들에게 가발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이어 환자들의 쾌유와 응원을 위한 대금 연주도 함께 진행했다.

본원은 앞으로도 사랑재 봉사단과 항암치료로 인하여 탈모를 경험하는 환자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가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